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80. 미사 해설 - 마침 예식(3) : 강복(2)

140. 특별한 날이나 상황에서는 예식 규정에 따라 이 강복 대신에 장엄 강복이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① 장엄 강복 (Benedictiones sollemnes)

위에 소개해 드린 미사 예규 142항에서 “특별한 날이나 상황에서는 강복 대신 장엄 강복”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미사 끝 강복과 백성을 위한 기도” 부분에서는 장엄 강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사 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강복은 미사, 말씀 전례, 성무일도, 성사 거행 끝에 사제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부제가,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다.” 하고 권고할 수 있다. 이어서 사제가 교우들을 향하여 팔을 펴 들고 강복을 하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한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장엄 강복에 대해서 다음의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제시된 시기에는 주례자의 권한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 주님 성탄, 새해, 주님 공현, 주님 수난, 부활 시기, 주님 승천, 성령 강림, 연중 시기 1-6,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 사도 축일, 모든 성인 축일, 성당 봉헌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장엄 강복을 이해할 때, 장엄 강복이 일반 강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엄 강복과 강복의 차이는 복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강복은 이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이 있기를 바라며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장엄



강복은 강복과 같은 개념에서의 청원이지만, 특별히 말씀이 삽입되어, 구체적인 기도 내용과 말씀을 통해 축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② 백성을 위한 기도 (Oratio populum)

미사 끝이나 시간전례에서 사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견 축복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는 장엄 강복에 지향이 3개 있는 것과 달리 지향이 1개만 있는 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말한 다음, 부제나 사제가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다.” 하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제가 교우들을 향해 팔을 펴 들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하고 강복합니다. 2017년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새롭게 펴낸 미사 경본에 의하면, 사순 시기 주일에는 이 기도를 바쳐야 하고, 사순 시기 평일에는 “자유로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28가지의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3분 묵상

영혼의 기도

김영문 브루노 신부

나는 잊히기 위해 산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에서
 고독한 나의 삶과 기도를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아름다움과 건강과 성공을 바라는 세상이
 주님과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설령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탄할 일이 아니다

세상 어둠 깊어도 빛나시는 주님이시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살고 또 잊히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를 기도할 뿐이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약속 금액 - \$ 29,125

현재 기부 금액 - \$ 26,285

현재 참가 인원- 76명



연중 제15주일(7/13)	토요 저녁(7:00)	주일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4명	81명	235명	60명	45명	475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55	예물준비 성가: 221, 511	성체 성가: 175, 176	파견 성가: 2
-------	-----------	-------------------	-----------------	----------

공 지 사 항

1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 봉헌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시작합니다.

- 묵주기도 기간: 7/1/2025 ~ 8/31/2026
 - 대 상: 전신자
- 현황판 앞에 있는 봉헌용지에 구역, 시티이름, 묵주기도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성전입구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역장 월례 회의

- 일시: 7/27(주일) 10:00 미사 후 11:30
 - 장소: 101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례 봉사자 교육

- 일 시: 7/27(주일) 12:45pm-1:30pm
 - 장 소: 성전
 - 대상자: 전례 봉사자, 희망자
- 모든 전례 봉사자와 더불어 강의 듣기를 희망하시는 교우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4 송봉모 토마스 모어 신부님 특강

- 일시: 8/10(주일) 10시 미사 후
 - 주제: 생명의 빵을 주시는 주님
- 송봉모 토마스모어 신부님 특강을 준비합니다.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강과 YG 여름 캠프로 인해 8/10(주일) 11:30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여름방학 역사문화캠프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 역사문화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8/7(목)-8/9(토), 9:00am-3:00pm
- 내 용: 한국어, 한국미술, 난타(한국음악), 미주한인사, 정체성교육, Kpop Dance, 한국어로 배우는 구구단.
- 장 소: 성 김대건 한국학교
- 참가비: \$250 - 점심식사, T-Shirt, Bag 제공.



6 Sunday School Summer Camp

- 일 시: 8/29(금)-8/31(주일)
- 장 소: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자: Sunday School (Upcoming) 4학년-8학년
- 등록기한: 7/28까지
- 7/29부터 8/10까지는 late fee \$20 추가 됩니다.
- 8/12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등록비: 1명 - \$120 / 2명 - \$220 / 3명 - \$320 (본당 지원금 - \$350)
- 문의: yungi1203@gmail.com
- 박윤기 F.하비에르 신부님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은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창세18,1-10L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콜로1,24-28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0,38-42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원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경력맞사지,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겐셋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강성수(가브리엘)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채널 등 425-774-1004/253-835-1004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Lina Wellness Clinic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다이어트약/영양 수액주사 Linawellnessclinic.com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모낭 줄기세포/탈모케어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유전성·스트레스·출산 후 browever.com/morivive 206-572-0633(이채연 릴리아나)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갈비·오징어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수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7/24/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8/16/25)

제30회 농민 주일 담화

‘주님께서 보살피고 살려 주시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시편 41[40],3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94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교회가 우리 농민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농산물 나눔터를 설치하는 데 협조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에 따라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며’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땅과 밥상을 살리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톨릭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하 우리농)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안 농민은 생명 농업으로 땅을 일구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우리농 나눔터’를 이용하며 생태 환경 운동에 함께해 왔습니다.

농부는 ‘주님께서 보살피고 살려 주시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는(시편 41[40],3 참조) 말씀을 믿고, 하느님께서 주신 땅의 선물을 충실히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마음으로 연대하며 걸어온 이 길은, 다만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제30회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각 본당과 가정에서 ‘생명 지킴이 운동’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

‘2024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적 식량 공급’이 대표적인 가치로 손꼽혔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가톨릭 농민회는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 순환 농업을 실천하며, 농부의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생명 농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하느님의 정원사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농 나눔터, 도·농 생명 공동체의 연결 고리

주교회의 1994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농업의 위기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도시와 농촌이 함께 나아가는 ‘도·농 생명 공동체 운동’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결실이 바로 ‘우리농 나눔터’입니다.

우리농 나눔터는 유기농산물의 모양이나 가격보다 그 생명 가치를 우선하는 문화를 도시 사회에 심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단순한 거래를 넘어, 생명을 중심으로 둔 나눔을 실천하는 생명 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농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유 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생태 사목 안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실입니다.

생태 영성을 생활화합시다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반포하신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회칙에서 “현재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에”, 이 방식이 계속된다면 “재앙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161항)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자원 소비 유형이 당연하듯이 보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삶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썼으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제와 절약의 덕을 기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또한 “‘우리의 개인적 공동체적 활동에 자극과 동기와 용기와 의미를 주는 어떤 내적인 힘’ 없이, 오로지 교리만 가지고 이 위대한 일에 투신하기는 불가능할 것”(216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세속의 현실과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병든 이의 탄식과 고통받는 이의 신음 속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이에 「찬미받으소서」 210항과 211항은, 의미 있는 생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회 구성원이 내적으로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확고한 덕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조에 기초한 전례를 장려하고, 생태 영성을 위한 교육과 피정과 양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도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생태 사도직을 수행하며 살도록 또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창세 1,29).

우리 모두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며, 생명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땅과 바다를 소중히 돌보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2025년 7월 2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 현 동 아빠스